

보험의학회지 제27권 1호의 발간에 즈음하여...

SIS특종상해손해사정(주), 파라메딕

이신형, MD, PhD, FLMI, ARA

At the time of issuing the Journal of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volume 27(1)

Sin Hyung Lee, MD, PhD, FLMI, ARA

Paramedic, SIS insurance claim adjustment Co .Ltd.

■ ABSTRACT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s public periodical, the Journal of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J Kor Lif Ins Med Assoc, JKLIMA) is now published 27th issue. From this issue there are some changes of the journal than before. It is because general requirements for medical journals from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s editors. It can be remedy for the development of JKLIMA, in terms of academicism.

First, the style of the manuscripts, medical opinion of insurance administration is added. This style of manuscript needs not keep the format of original research article such as background, materials, results, and discussion. Secondly, It is emphasized that submitted manuscripts must be reviewed by peer reviewers. Thirdly, we will make an effort to globalization of our journal. Lastly the publication period has been changed from annual to biannual. The publication date will be at March 31st and September 30th every year.

Key Words : manuscript, medical journal

I. 들어가는 글

한국생명보험의학회의 공식 학술지, 보험의학회지는 이번 호로 지령 27년을 맞이 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3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학술지 발행을 이어주신 선배 편집인 선생님들께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아울러 보험의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현재를 짚어보고, 앞날을 가늠해 볼 적당한 시기라는 생각도 든다. 우리 보험의학회지는 이번 27권 1호 부터 이전 호와 비교하여 몇 가지 바뀐 점이 있으니 이를 소개함과 동시에 의학학술지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향후 우리 학회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새로운 편집인으로서 미래의 논문 투고자들에게 본 학술지의 편집 방향을 알려드리고자 지면을 할애하게 되었다.

II. 중심 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의학학술지가 존재한다. 의사 및 의학도는 의학학술지로부터 의학적 지식을 얻는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 시절의 교과서 수준을 벗어난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의학학술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현대의학은 근거중심의학을 옹호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근거중심의학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해 쏟아 붓는 예산은 엄청나며, 이것만으로도 근거중심의학이 세계의학은 주류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근거중심의학의 '근거' 로 사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의학학술지에 존재한다. 따라서 의학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은 근거중심의학의 '근거' 로써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생명보험의학회는 여타의 순수 학술단체와 비교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다. 보험의학의 목적은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에 있으며, 이는 임상의학의 목적이 환자의 건강증진이라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은 보험회사의 성공적인 경영으로부터 가시화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¹⁾ 그래서 보험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들, 즉 보험의는 보험회사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된다. 병원이 아닌 회사에 고용된 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그 의학적 판단 및 업무 수행에 대하여 세간의 오해를 사기도 한다. 하지만 흰 가운을 입지 않았다 하여 의사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며, 본분을 망각할 수도 있겠다는 짐작은 당치 않다. 이 같은 내용들은 '가운 벗은 의사' 또는 '회사원 의사' 라는 주제로 꽤 오래 전부터 관심 두던 분야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랜 전작으로 상당한 정도의 학문적 체계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실정이다.⁽²⁾ 결론은 가운을 벗어도 의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한국생명보험의학회는 생명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키 위해 설립된 생명보험협회의 산하 단체이다. 따라서 업계의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회의 공식정기간행물에서도 그와 같은 성격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잡지의 호별 기획 방향에 의하여 기고자를 선정하고, 기고문에 대하여 일정 원고료를 지급하는 등이다. 이와 같은 업계의 관례는 지금까지 보험의학회지 투고 및 상호심사(peer review)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였다.

한편, 한국생명보험의학회는 대한의학회의 정회원 학회이며, 보험의학회지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의 정회원 학술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편집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세계의학학술지편집인회의에서 제시⁽³⁾하였으며, 우리나라 의편집 역시 이를 따른다. 그리하여 보험의학회지는 한국생명보험의학회 이사회를 거쳐 몇 가지 개선을 하게 되었다.

첫째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하여 투고 및 상호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장 큰 변화이다. 기고에서 투고로 변화함에 따라 원고료도 폐지하였다. 원고료 폐지에 발 맞추어 세계 의학학술지의 추세를 따라 원문 개방 철학 도입의 필요성도 생겨났다. 이는 좀 더 논의를 거친 후 의사 결정할 계획이다.

둘째 투고규정의 개정이다. 많은 세부 내용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투고 논문의 종류에 보험실무 관련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보험의학 분야에서는 여타 임상의학 분야에서와 같은 형식을 갖춘 원저논문을 만들기가 녹록치 않다. 기본적 연구대상인 환자가 없고, 그나마 연구 재료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그 소유가 보험회사에 있으며 피보험자의 개인정보처럼 대부분 대외 비적인 성격이어서 보험의의 개인적인 흥미만으로 연구에 활용키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병원이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연구위원회' 와 같은 연구지원 부서가 보험회사에 존재할 당위성도 부족하다. 보험회사의 존재 목적은 학문 연구가 아니며, 교육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의학이 활용되는 분야, 즉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은

보험업무 중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및 소비자 만족과 같은 보험관리 업무이다. 보험의학적 연구란 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의학적 정보를 찾는 일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정보는 보험 의학 안에서 근거중심의학의 '근거' 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미 밝혀진 임상의학적 연구 결과를 보험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보험의의 업무 측면으로 볼 때 매우 큰 가치를 지니며, 보험의학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원고는 배경-대상-결과-고찰과 같은 일반적인 원저 형태의 논문 보다는 실무에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는 편이 더 낫다는 느낌이다. 보험의학계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혀지는 학술지⁽⁴⁾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논문이 다수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보험의학회지는 '보험실무 관련 연구는 원저의 형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개정된 투고규정에 명시하였다. 이번 호에서 Pokorski⁽⁵⁾와 오⁽⁶⁾ 및 최⁽⁷⁾ 등의 논문이 이에 해당된다. 더불어, 투고논문의 상호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을 선정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속 기관 또한 보험업계뿐 아니라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을 망라하였다.

세번째 개선사항은 국제화 최소 요건의 준수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비영어권 의학학술지의 국제화 최소 요건이란 서지사항, 초록 및 도표, 그리고 참고문헌의 영문표기를 의미한다. 이전의 투고규정도 명시되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는 못했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 중 영문교정 및 오타자 수정만을 담당하는 원고제작편집인(manuscript editor)을 따로 임명하였다. 참고문헌의 오류 색출도 전담하게 된다.

의학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껏 보험의학회지는 국문 및 영문 원고 모두 가능한 체제였으나 영문원고의 게재는 거의 없었다. 향후 영문 원고의 투고를 활성화할 생각이며, 이번호 처럼 Pokorski⁽⁸⁾와 같은 세계적인 보험의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 개선사항으로 증편을 빼놓을 수 없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제시한 학문 영역별 학술지 발행 권장 주기는 인문학의 경우 년 1회, 자연과학 및 공학 년 2회, 의학은 년 4회이다. 한국생명보험의학회에서 학술지를 년4회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우선 년 2회로 증편하고 향후 증편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증편과 더불어 판형도 변경하였다. 기존의 B5 크기의 1단 편집은 논증을 통한 이론 전개가 일반적인 인문학계 논문에 알맞은 형식이다. 의학논문은 논증보다는 통계학적 검증으로 이론을 주장하며, 그림과 표가 많아 A4 크기로 2단 편집하는 것이 용지 활용면에서나 가독성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이다.

더불어 기존 학술지에 관례적으로 삽입되던 회원명단을 회보라는 형식의 간이 책자로 독립시킴으로서 전체 학술지 중 논문 이외의 부분은 투고규정 정도로 국한시킬 예정이다. 현재의 편집 예산 규모에 맞추어 향후 호당 총 80쪽 중 논문 7 내지 8 편으로 70 여 쪽을, 투고규정 등 기타 행정사항으로 10여 쪽을 배정할 계획이다.

III. 나가는 글

지금까지 보험의학회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의학학술지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보험의학회지가 이번호 부터 개선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체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선을 통한 발전이 목적이므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리라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문 투고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생각이다. 논문 투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 학술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생명보험의학회 회원들과 보험의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를 기대하며 편집인 단상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Orsina M, Stone G. insurance company operation 2nd ed. Atlanta, LOMA, 2005, pp.2-17.
- (2) Draper E. company doctor: risk,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professionalism. New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3, p.328.
- (3) 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 126:36-47.
- (4) MacKenzie R. notes from the new editor, J Insur Med 2007;39;5-7.
- (5) Pokorski RJ. Potential impact of the new universal definition of myocardial infarction on critical illness insurance, J Korean Life Insur Med Assoc 2008; 27(1):14-7.
- (6) Oh HJ. Korean Classification of Disease 5th edition, J Korean Life Insur Med Assoc 2008; 27(1):21-3.
- (7) Choi SY. Various underwriting methods though case audit, J Korean Life Insur Med Assoc 2008; 27(1):18-20